

“ 인간의 패역과 하나님의 자비 ”

■ 이종윤 원로목사

인간의 극에 달한 악인의 패역상을 보고 한 시인이 탄식을 금치 못한다. 저들의 안중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벌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거기에 자기 마음에 아첨하는 ‘자궁’ 까지 했다.

창조주께서는 지혜와 선을 말하는 도구로 사람에게 입을 지어 주셨건만, 저들 악인은 그 입을 악과 거짓을 토하는 분화구로 악용하고 있었고, 낮에 악을 행한 사람도 밤에 침상에 들게 되면 자신을 반성하고 과오를 뉘우치는 수가 있는 법이거늘, 저들 악인은 참회는 커녕 저들의 침상을 더 큰 악을 계획하는 온상으로 삼고 있었다. 저들은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의해 피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좋아하여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다. 더구나 방관할 수 없는 일은 저들은 이러한 패역한 생각과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충동하여 저들의 동조자를 점차 확산시켜 간다는 사실이다. 안하무인격인 악인의 배신과 패역상을 보고 개탄함을 금치 못했던 시인은 주님의 존귀한 품성을 상기하며 찬양을 마지않는다. 악이 극에 달한 세상에서도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신망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복이다. 시인은 여호와와 인자와 성실에 감탄한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는 말은 악인의 패역을 초월하여 주의 인자가 존대하다는 뜻이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는 말은 인간의 불성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와 그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주신다는 뜻이다.

시인은 계속하여 여호와와 공의와 심판을 믿고 찬송한다. “공의가 산과 같다” 는 말은 여호와와 공의의 견고성과 엄위성, 불변성과 부동성을 나타내고, “판단이 바다와 같다” 는 말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호와와 심판의 깊이와 신비함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여호와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짐승도 보호하시고, 짐승도 필요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해 보이는 것까지도 보호하신다. 하물며 인간이라!

여호와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균등하게 분배하시고, 공기를 고루 할당하시며, 우로를 차별 없이 내리신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마시며, 벌써 멸절되었어야 할 인간들이 오늘까지 생존함도 바로 이 까닭이다.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자들의 세계관과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세계관을 말한 시인은 결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의인의 필연적인 기원을 들을 수 있고 시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과 의인이 의인으로 대접받는 사회라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오만한 악인들의 불손과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다. 악인의 재기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라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생각을 꺼리는 이유가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심판날에 구원 받는 이나 형벌 받는 이의 정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를 것이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받을 심판보다 견디기 쉬운 것이라 하셨다. 소돔의 형벌이 가버나움의 받을 벌보다 가벼울 것이라 하셨다. 두로 시돈 소돔의 백성들은 악한 자로 형벌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형벌보다는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형벌에 차등이 있다. 가장 악한 죄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행한 것을 기록한 책들에 따라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구원도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출 받은 롯과 같은 이의 구원도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게 전가되어 정죄하는 심판 없이 자비의 구원을 얻는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돌리자!

-한국장로신문 [제1606호] 2018년 8월 11일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01, 11:20am]	[Rev. Euichang Kim, PhD]
Praise & Worship	Praise Tea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 Hymn	25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al Prayer	Mr. Kyung Won Jang
Hymn	263
Scripture Reading	1 Pet 1:18-25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Our Faith, Hope, and Love (1)”
* Hymn	484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h3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비전 (vision)</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필리핀),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네(캐나다), 김종일박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베로이, 필리몬, 프란소프, 수레시, 수버쉬, 알로롱, 비시루뵈드, 보다소프, 린롬, 수리존(벵골 라티샤)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인(필리핀),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안스카르)		

제30권 제45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11월 8일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때문에 그리고 안에서! ”

■ 고전 4:10-13
 성도가 욕망을 제어하는 힘을 갖게 되고 보다 고상한 욕구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내적 역사하심과 우리의 구에 들려주는 말씀의 경화시키는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최고의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1.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실 가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나라를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앞세우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이 미혹에 휘말린 것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심지어 왕 노릇까지 하는 자기 과시형 교만 죄에 다 물들어버렸기에 사도 바울은 직접 펜을 들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결말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딤후 3:12) 사도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쥬쳐 없이 떠도는 자라고 했고, 13절에 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욕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승화된 욕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통상적인 면이 아닐 때 의아스러운 눈초리를 보입니다. 왜지? 뭐 때문이지?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나의 나 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켜진다
 10절은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며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때문에 구경거리가 된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요 가장 강한 자들이요 가장 존귀한 자들이며 가장 부요한 자들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쓰는 그 순간까지 사도들이 직면한 상황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능욕당하고 핍박받고 추방당하고 갇히는 곤욕을 겪는 길로 나아가며 죽기까지 그런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좌우에 가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으나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7-10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인격이 고상하고 품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자들로 나타나고 싶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맡겨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맺는 말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행복하고 즐겁고 영적으로 큰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다니는 거룩한 길로, 구별된 품격을 지닌 성도들의 길로 다녀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터널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다니며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경건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서고 천하고 약하고 구경거리가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부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그는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이지요.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놀라운 복락을 다른 사람들도 소유하게 하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서울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장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안인호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장석남 목사	박정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95: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9(시 6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43(5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4:14-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노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570((45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전 4:14)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양예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19:105 인 도 자
 찬 송 200(235) 다 함 께
 기 도 김규태 집사
 성 경 딤후 3:14-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배우고 확산하는 일” ... 설 교 자
 찬 송 202(241)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 I부: 박현영 권사 II부: 남태영 권사
 성 경 수 9:3-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고백”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교 회 소 식

-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웨스트minster 홀(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 장 례
 - 故 이영학 성도(4교구 이현정 집사의 부친, 김영희 집사의 장인) / 2일(월) 별세, 4일(수) 발인
 - 故 김용기 성도(16교구 김정희 권사의 부친, 노계현 집사의 장인) / 6일(금) 별세, 8일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94명	359명	1,953명	498명	1,526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1/0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01일	헌 금	59,828,100	
	찬양운영비		200,000
	교회학교운영비		466,000
	선 교 비		100,000
	경 조 비		620,000
	출 판 비		330,000
	예 수 금		31,485,800
	복리후생비		31,608,700
	통 신 비		275,430
	수도광열비		14,697,560
	차량유지비		3,228,060
	소모품비		63,160
	환경유지비		629,660
	수선유지비		2,357,900
	식당운영비		736,780
	합 계	59,828,100	86,799,05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